

난방비 폭탄에 소비 위축... 화훼농가 '눈물의 졸업시즌'

월 전기료 500→800만원 경중...안개꽃 1단 값 전년비 두배 올라 오늘부터 광주권 대학 졸업식 진행...소비 부진에 도소매업도 타격

“꽃 농사를 20년 넘게 짓고 있는데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21일 오전 찾아간 광주시 광산구 평동 일대의 화훼단지. 이곳에서 5300㎡(약 1600평) 규모의 장미농사를 짓고 있는 박미경씨는 애꽃은 장미꽃 잎사귀만 만지작거리며 푸념했다.

박씨는 장미꽃을 심어 놓은 비닐하우스 안은 히터가 꺼져 있어 다소 쌀쌀한 감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치솟은 전기요금 탓에 히터조차 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기료가 부담돼 히터를 못틀고 있다”며 “(장미가)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장미는 한 밤 중 온실 기온이 20도 정도의 고온을 유지해야 하지만, 박씨의 온실은 15-16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500만원 수준이었던 전기료가 1월에는 8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불과 한 달새 3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선불리 히터를 틀지 못한다”는 그의 말이 실감나 됐다.

전기료에 양액비료와 영양제 등 고정비용을 포

함하면 장미 한 송이에 못해도 2000원은 받아야 한다는 게 화훼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도매인들이 제값을 쳐주지 않으니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송이에 700원 정도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직거래는 수요가 워낙 적다고 한다.

이처럼 치솟은 전기료와 유류비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광주 평동 일대 화훼농가도 생업의 터를 떠나버리고 있다. 몇 해전만 해도 10곳이 넘었던 장미농가가 최근엔 절반도 남질 않았다. 아예 생업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거나, 난방비 지원이 많은 전남지역 시·군으로 농장을 옮기는 탓에 광주 화훼농가는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역 농가의 설명이다.

박씨는 “예전엔 국내에서 가장 큰 화훼 도매시장인 서울 양재에서도 ‘평동 장미’라고 하면 최고로 알아주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것은 옛말이 됐다”며 “졸업식 시즌이라고 하지만 대목은 없다”고 토로했다.

대학이 졸업 시즌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화훼농가는 급등한 전기료와 기름값 탓에 운영비가 오르

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농가 뿐 아니라 꽃을 직접 판매하는 도소매 업계 역시 고물가·고금리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 화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권모(64)씨도 소비자들의 그늘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한다.

꽃값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3000원 수준이던 생화 한 송이가 품종별로 많게는 7000원까지 올랐고, 한 판에 20개들이 초화류도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20%가 오른 상황이다.

실제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2월 13-17일 광주(풍암원에) 지역 안개꽃 1단 가격은 2만58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67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권씨는 “경기침체로 먹을 것까지 줄이는 등 지갑을 닫는 상황에 꽃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냐”며 “기념일이나 졸업식, 승진 등 기념일에 꽃을 주문하는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꽃을 사와 보관하는 하우스에 들어가는 난방비만 하루 30만원에 육박한다”며 “매출은 줄고 유지비는 늘어가니 답답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오는 22일 광주대와 동신대, 23일 호남대와 광주여대, 24일 전남대와 조선대가 졸업식을 진행한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의



2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평동에서 장미 농사를 짓고 있는 박미경씨가 꽃을 둘러보고 있다.

졸업식이 진행되지만, 화훼업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꽃다발을 사는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병일(가운데)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통해 헌혈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헌혈로 사랑 나눠요”

임직원 150여명 캠페인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0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은행 본점 앞 헌혈차량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은행 임직원을 비롯해 광은비즈니스

등 광주은행 본점 입주시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50여명의 임직원들이 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번 헌혈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구매하지 않고 자유롭게 헌혈

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친환경제품 등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광주은행 임직원 ESG공헌부장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포스코, 6000억 투입 광양제철에 전기로 신설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내년 착공해 2026년 가동 목표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t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한다.

포스코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약 6000억원을 투자해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t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전기로 투자는 2024년 1월 착공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목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정책 수립,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탄소감축 이행 요구, 저탄소 제품 수요 증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포스코는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상용화돼 기존 고로 공정을 대체하기까지 전환단계 동안 전기로를 도입해 탄소 감축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기로 투자는 탄소중립을 향한 포스코의 실질적인 첫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포스코는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중·일 등 대형 고로 생산체제에 기반한 아시아 철강사 중 처음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다.

고로 등 기존 생산방식을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포

스코는 HyREX 기반 수소환원제철 상용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소환원제철 데모 플랜트 설계에 착수한 바 있다.

전기로에서 생산한 쇳물(용강)을 직접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용선)과 혼합하는 합탕 기술을 적용해 기존 고로 방식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특히 합탕 배합비 조정을 통해 다양한 등급의 저탄소 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고객사별 요구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전기로 철스크랩 활용시 고급강 생산에 한계가 있었으나, 합탕 기술을 통해 저탄소 고급강 제품 생산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한은 “금리, 여러 요소 점검해 판단”

기재위 현안 보고 “당분간 긴축 기조”...내일 금통위

한국은행은 21일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까지 인상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대 현안 보고 자료에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졌지만,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흐름이 연중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성장 회복 위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는 단기적으로

수출 부진, 소비 회복세 약화 등으로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경제 회복, IT(정보기술) 경기 반등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주택시장은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 연세 하락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매수 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 주택가격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의를 연다.

/연합뉴스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60세→55세 하향

기간형 상품 20년형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모두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우량농지를 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1000→1500만원

고용부, 6월까지 한시 상향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는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도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용자 한도 금액을 한시적으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용자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불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기계설비건설협 광주·전남회장에 전상철 대표

전상철(사진) 세진건설(주)대표이사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대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대회는 21일 2023회계연도 정기총회를 열고 12대 신임 회장으로 전상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전상철 신임 회장은 “기계설비협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업역의 권익 신장과 역동적인 협회로 만들기 위해 회원사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대·11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6년간 협회를 이끌어왔던 전임 최봉호 회장은 이날 이임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업계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사 대표 및 장기근속 임직원, 관내 기계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또 지역대학 기계설비학과 학생과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후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산세무서, 하남산단 입주기업 세제 설명회

광산세무서는 21일 광주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단 입주기업 협의체와 광산세무서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참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명회를 통해 공제·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은 기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확정신고와 앞두고 고용증대와 시설투자를 실시한 법인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열람 등 기업의 성실신고 및 신고편의를 위해 국제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도 소개했다.

임진정 광산세무서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8.96 (+3.84)
↑ 코스닥	793.42 (+4.53)
↓ 금리(국고채 3년)	3.623 (-0.054)
↑ 환율(USD)	1295.90 (+1.40)